

목포시의회, 주민재정 건전성 심층 연구 나선다

주민재정자치클린 연구단체 출범...고경욱 등 7명 의원 참여 연 3회 경제 악화·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분석...발전 방향 도출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재정자치클린 연구단체를 출범하며 목포시 주민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한 심층 연구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 연구단체는 목포시 주민재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해 목포시 의원들이 구성한 단체로, 사업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연구 단체는 연 3회 연구모임을 통해 경제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소요 증가를 분석하고, 목포시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해 주민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 2회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재정 관련 정책 사안을 직접 확인하는 현지 심

증 활동을 진행한다. 연구단체는 연 1회 주민재정 안정화를 주제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재정자치클린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시·군을 견학하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한 연 1회 주민재정자치클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주민재정 자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목포시에 적합한 주민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민재정자치클린 연구단체’ 참여 의원은 ▲회장 고경욱 의원 ▲간사 최지선 의원, 회원으로 ▲이동수 의원(부의장) ▲유창훈 의원 ▲최환석 의원 ▲정재훈 의원(운영위원장) ▲최환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 등 7명이다. 고경욱 회장은 “연구단체는 ‘목포시 주민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주제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강연과 현지 방문,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재정 안정과 건전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목포시의회 주민재정자치클린 연구단체로 활동하는 (좌로부터)이동수, 유창훈, 최지선, 고경욱, 정재훈, 최환석, 최환석 시의원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공)

완도-제주 2시간30분...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 취항

1일 1회 왕복·최대 948명 탑승...운항 시간 선택 폭 확대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가 취항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골드 스텔라호는 매일 오전 9시20분 완도에서 출항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시 출항, 1일 1회 완도에서 제주를 왕복 운항한다. 골드 스텔라호는 완도에서 제주까지 2시간30분이 소요되며 최대 948명, 승용차 343대를 수용한다. 현재 완도-제주 항로는 한일고속의 실버 클라우드호가 일 2회 운항되고 있다. 골드 스텔라호 취항으로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이른 오전, 오전, 오후에 생김으로써 운항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골드 스텔라호는 특실, 마루·침대·캡슐 객실, 펫 룸 등 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객실과 휴식 공간, 오락실, 키즈룸 등 부대시설도 다양하게 갖췄다. 완도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전 시간에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없어 여행객들이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번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골드 스텔라호는 최신 선박으로 많은 승객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제주 여행을 하길 바란다”며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4월30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가 15일 취항한 가운데 매일 오전 9시20분 완도에서 출항하며 제주까지 2시간30분이 소요된다. (완도군 제공)

일까지 여객선 왕복예매 시 객실, 차량 완도-제주 여객선 운항 정보는 한일고속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설 명절 선물, 명품 나주배”

선과 현장 방문...전년 설 명절비 작업 물량 46.8% ↑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상품 나주배 선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병태 나주시장은 금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선과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선과 작업은 최대 소비 대목인 설 연휴에 맞춰 지난 8일 나주배원형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각 지역 농협 8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작업 물량은 약 1천541t(18kg 기준 8만5천600상자)으로 전년 설 명절 대비 46.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량은 늘어났지만 지난해 장기간 폭염에 따른 배 일소(햇볕 데임)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품화 물량은 줄어들어 더 꼼꼼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물용 나주배 가격은 5kg 특상품 기준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민선 8기 나주시장이 보증하는 고품질 배 브랜드로 출시한 ‘천년이름 나주배’도 판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성장조절제 무처리(무GA),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색깔, 신선도 등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한 배로 설명절 전국 대형 유통 마트, 농협, 나주물(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총 300을 출하할 예정이다. 천년이름 나주배 나주물 판매 가격은 5kg 기준 5만6천원, 7.5kg는 7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무료다. 나주물에선 30일까지 나주배를 비롯한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만원 이상 구매 시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윤병태 시장은 “기후 변화와 일소 피해로 영농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최상의 나주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줘 감사하다”며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배 농가 피해 회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나주배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 높은 당도를 자랑하면서 대표적인 건강과 일기기에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배의 수분, 당분은 숙취 해소에 좋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비만, 동맥경화 등 성인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나주=정준환 기자

신안군, 전남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

전년비 136명 ↑...햇빛연금·1심1무지업 등 요인

신안군은 15일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인구는 2024년 12월 기준 5천121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10만8

천여명 감소한 가운데 신안군은 3만8천173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 증가했다. 신안군은 2023년에도 179명의 인구가 증가해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남 신안군, 충남 예산군, 경기 가평군, 경북 울릉군, 전북 순창군 뿐이다. 신안군의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은 햇빛연금, 햇빛이동수당, 청년어선임대사업, 정원수 협동조합 등 경제적 요인과 1심1무지업, 1심1정원 등 문

화적 요인, 그리고 출생기분수당, 청년임대실습농장 지원, 노인 돌봄사업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들이 꼽힌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과 향후 추진될 비빔연금 등 다양한 정책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군이 지난 13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위촉된 162명의 위원들이 2년간의 주민자치 활동을 선언하며 플래카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영암군 제공)

“5개 읍·면 모였다”...영암군,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162명 위원 위촉...마을의제 제기 등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영암군 5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제1기 영암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영암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주민자치위원회 162명은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2년 동안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영암군은 읍·면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해 지난해 정책간담회와 읍·

면 순회설명회를 12회 진행하며,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비전을 영암군민에게 알렸다. 나아가 ‘주민자치 시범 읍·면 공모’로 5개 읍·면을 선정하고, ‘영암군 주민자치학교’로 7차례 주민 교육을 진행한 다음, 제1기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 선발했다. 또한 2회의 공직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해 주민들의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뒷받침할 토대를 닦았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앞으로 각

읍·면으로 나눠 마을의제를 제기·해결하며 지역 주민자치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암군은 제1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대표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길 바란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된 올해 출범한 영암의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를 하는 새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명예 수당 3만원 인상해 지급

진도군은 15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주어지는 명예 수당을 인상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먼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은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인상됐다. 지급 대상자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등 519명이며, 2025년 예산은 8억7천300만원이다.

보훈 관련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13일 금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선과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나주배 성공 판매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도시가스 설치비 용자 지원

주택 가구당 500만원·사회복지시설 1천만원 한도

영광군은 15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용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려면 시설 설치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

출이자율은 연 1.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설치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을 준비해 대출 추천 신청서를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061-350-5997)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정적 부담을 느낀 세대에게 설치비를 저금리로 용자해줌으로써 가스배관망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